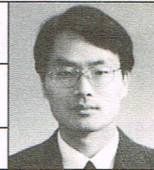


나의 모든 재난은 내 죄의 대가이다?

김병모 목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겪는 모든 재난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과 이 통념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서 그의 장막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재난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용감하게 전사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아가 랍바 전투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엘리아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아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욥이 당한 그 엄청난 재난이 과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것이 과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으며 사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과연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금년에 우리 나라는 가뭄과 홍수 때문에 적지 않은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도나 이란 등에서는 지진 때문에 많은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겪는 재난 중에는 그가 지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난도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이 세계 자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나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치면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무조건 자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녀가 대입에 실패하거나, 빚나게 되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재난이 닥친 이유가 실제로 내 죄 때문인데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실제로 내 죄 때문이 아닌데도 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책의 나날을 보내는 것도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치면 무턱대고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기 전에 그 재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재난의 원인이 나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재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아무리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심사숙고를 해 보아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그릇된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 니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그 재난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멀리 동떨어진 이 세계 자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죄책감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도, 관련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2면으로)

함 무 즐 음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2호(격월간)

발행일 2001년 9월 1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 교내)

tel. 02-416-5181~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1~2

나의 모든 재난은 내 죄의 대가이다/
김병모 목사

2

겸손한 감사와 섬김/ 노희현 집사

3

기독교비판 서적에 대해/ 최장섭 장로

4~7 특집: 수련회를 마치고

꽃동네를 다녀와서/ 박진수 집사

꽃동네/ 신성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 심수정

열중선교, 차렷봉사/ 남미경 A집사

7~8

아베스의 기도를 읽고/ 이정원 B 집사

8

열 손가락으로 말하는 가족/
백경숙(테레사) 선교사

9

일본의 역사왜곡을 보며/ 이윤희 교수

10

둘사람과 나눈 이야기/ 오종세 집사

11

성경퍼즐, 교회소식

12

신앙클리닉

절망은 없다/ 이희숙 A권사

겸손한 감사와 섬김

노희현 집사(회락 11구역)



감사는 그 주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어질 줄로 믿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통한 감사와 물질적인 감사 등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넘어 삶을 선물로 받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은 생활화 되어야 하고, 이는 나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지체들에게 섬김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온전한 감사와 섬김에는 겸손이 밑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찬양을 통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전하는 성가대 사역은 겸손한 감사와 섬김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교회와 역사를 같이하는 시온 성가대는 금년에 들어 와서 100여명 이상의 대원으로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져 왔다. 지휘자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지도와 함께 많은 선배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지도와 사랑,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성실한 섬김으로 이루어낸 열매라 생각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귀한 달란트를 바탕으로 온몸으로 지도하는 지휘자의 헌신은 모든 대원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고 준비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다. 모든 대원들도 그의 지도에 뒤질세라 기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자 애쓰고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주한 삶이지만 말기신 귀한 직분에 감사함으로 한 주일을 찬양과 예배로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의 선한 감사와 섬김은 주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 그 시간들은 지나간 한 주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 오는 한 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한 주간 세상의 일로 피곤하여 지친 몸이지만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와 섬김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그 감사와 섬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내적 모습을 새롭게 하고, 섬김을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 속의 나의 감사가 자기 만족이나 가족 중심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거나 않은지? 아니면 알에서 깨어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감사를 이루고 있는지? 참된 감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표출되는 감사와 섬김은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어 그 분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감사함과 섬김의 중심에는 겸손과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감사와 섬김은 감사가 감사함에 머무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밑거름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과 만남은, 나의 능력과 의지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탕으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의 내적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의 길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온전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외적 표현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 내지는 오만함이 아니었는지?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연보를 말씀하시면서 최선의 것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러한 겸손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소극적 감사가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적극적인 감사와 섬김이라 생각한다. 소극적 감사에는 간증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열매는 없다. 영적,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자세이지만 그 단계를 뛰어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감사와 섬김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산 제사일 것이다. 영적,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 감사 기도하면서 그 필요로움을 홀로 누린다면 과연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눈을 들어 나보다 더 낮고 어두운 자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감사와 섬김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비하시는 시온 성가대에는 대원 모두의 기도, 헌신 그리고 감사와 섬김이 찬양으로 연결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삶의 현장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찬양과 감사일 것이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삶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사를 겸손히 이웃에게 나누고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을 견고케 함은 물론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수준 있는 감사로 이어질 줄로 확신한다.

(1면에서)

오�히려 진정한 해결과 회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릇된 죄책감에 사로 잡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재난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닥쳐온 재난을 제대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 재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또는 복은 아닙니다. 이 재난 자체는 분명히 흑독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극복해 내게 되면, 바로 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한층 더 자라게 됩니다.

기독교 비판 서적에 대해

최창섭 장로(사랑 1구역)



최근 『예수는 없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기독교 죄악사』 등 얼핏 제목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기독교인들은 물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자들이 이야기하듯 책의 궁극적인 집필 목적은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 교회의 비리와 모순, 기독교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교계에도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책의 내용에 대해 비평을 하기에 앞서 왜 우리 나라 기독교는 이러한 책들이 나오도록 빌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공분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지금도 기독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따라서 일부의 비판처럼 교회의 파괴를 노리는 마귀의 흥계로만 단정짓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무리들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 비록 마귀의 흥계라 할지라도 그 흥계를 깨뜨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예수의 삶을 잃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독선적인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기성 교회의 현실, 예수는 뒤로 제쳐놓고 교회 성장의 모든 공을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일부 교계 지도자의 한심한 모습(이들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이러한 책들이 나오게 하는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반 성도들의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교회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책들이 줄을 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책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름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의 순수한 신앙을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신학 사조가 서양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신학 사조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원주의가 진리인 양 호도하는 것은 예수 바로 믿기를 빌미로 선량한 신앙인들을 실족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연 그러한 신학 사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고집쟁이이고 배타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일까? 혹시 그렇다고 주장하는 필자 역시 교회에서 입은 상처로 인하여 배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와 닮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짜 아

버지만을 아버지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집쟁이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예수는 없다』는 책 말미에 현각 스님(『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은 꼭 막힌 기독교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현재 꼭 막힌 기독교는 유럽이나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부 지역과 이들 지역의 꼭 막힌 선교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만 서식하는 기현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학자의 오만이고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사회나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정의까지 다 도매금으로 불의라고 단정짓는 것은 소수의 정의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양식있는 학자의 태도도 아니다. 저자는 이 땅의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앙인(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을 만나 보고 모두를 꼭 막힌 기독교인으로 단정하는 것일까?

이 책을 쓴 사람은 비교종교학자다. 는 비교종교학을 단어가 주는 의미 이외에 더 깊이 알지는 못한다. 다만 비교종교학은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 학문인지 묻고 싶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어떠한 학문이든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참 예수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 땅의 교회와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화려한 교회들은 노인들의 휴식처로 전락하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 화려한 교회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살찌지도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예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진리이며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예수라면?"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할 뿐이다. 어찌되었든 이 책들은 일반 성도 특히, 교회 개혁에 앞장서야 할 목회자들은 한 번씩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꽃동네를 다녀와서

박진수 집사(중등부 교사, 충성 14구역)



지난 8월 2일부터 2박 3일간 중등부 아이들 110명과 교사 8명은 충북 음성군 금왕리에 있는 꽃동네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꽃동네 가족은 모두 4천 명으로 장애인 3천 명, 봉사자 1천 명이라고 한다.

꽃동네는 지난 1976년 어느 날 오웅진 신부님이 다리 밑에 있는 걸인 최귀동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18명의 가족(걸인)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작 당시 오신부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300원과 성당 식구들의 헌금으로 가족(걸인)들이 머물 숙소를 건립하였는데, 어떤 교사 한 분은 20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을 내 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 저기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루에 2천만 원이나 소요되는 3,000명의 장애인을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1천여 명의 봉사자가 끊임 없이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가? 또한 그곳을 배우기 위하여 종교에 관계 없이 연간 60만 명이 다녀갈 수 있을까? 모든 가족이 만나고 스칠 때마다 외치는 구호 "사랑합니다"가 이러한 위대함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몇 년 전 심신요양 시설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 당시 국무총리 이수성 씨가 기념사를 하는 도중 준공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국무총리께 야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했는데, 앞에 있는 산 쪽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내려 쏘이는 날에 찬란한 무지개가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언어 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표어를 곳곳에 붙여 놓은 꽃동네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첫번째 부류는 「받는 자」들이다. 3,0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자기 것만 챙기고, 받을 줄만 알고 있었고, 얼굴에는 시기와 질투의 표정이 가득했으며, 가끔 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류는 「베푸는 자」들이다.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

이다. 몸이 비틀려진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치매 노인, 평생을 누워서 밥을 받아 먹어야 하는 어린이 등을 보수도 없이 시간과 몸과 물질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들은 항상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있었고, 얼굴 표정과 언행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누구라도 베풀지 않고 섬김이 없으면 저러한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꽃동네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고 한다. 장애자를 돕는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였다.

주님의교회 중등부는 전국에서 모인 교회·성당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꽃동네 체험을 하였다. 그런데 주님의교회 중등부 아이들에게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봉사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이나 꽃동네 교사들의 인솔하에 받는 교육은 개별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단체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협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가장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자고 난 이부자리 정리도 하지 않고, 방 청소도 안하고, 집합 명령이 떨어져도 가장 늦게 모이는 아이들이 주님의교회 아이들이었다. 꽃동네 교사들에게 민망함을 느꼈다.

중등부 교사들이 사전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점도 있지만, 자라난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한 자녀라고 지나치게 품안에서 과잉공부, 학원 등을 쉴새 없이 보내다 보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공동체 생활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교회 부모님들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하여 "올바른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지금과 같이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섬김을 모르고 자란다면 꽃동네 장애인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어쩌면 꽃동네 가족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현장 꽃동네를 보고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꽃동네

신성진(중등부 3학년)



8월 2일 오후, 도착한 꽃동네는 내 상상과는 사뭇 다른 곳이었다. 꽃동네는 낡아서 다 떨어진 슬픈 기운 가득한 동네, 혹은 침실마다 침대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힘없는 표정으로 누워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꽃동네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과 쾌적한 환경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렇게 나와 첫 대면을 한 꽃동네는 2박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고, 많은 충격을 주었다.

첫날, 긴 시간의 자동차 여행으로 지친 우리는 꽃동네의 쾌적함과 현대적임에 놀라며 대강당에 들어섰다. 간단한 입소식과 함께 시작된 장애 체험은 충격적이었다.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안대를 하고 친구의 손을 놓은 채 일어섰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걸음 한걸음 옮기며 통나무 다리를 건넜다. 도우미 친구의 방향지시가 아니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에 친구들과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넘어지기과 안대를 한 채 걷기를 해 보았다. 쉽지 않았다,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다. 내 등뒤에서 나의 몸을 받쳐줄 친구의 손을 믿기가 쉽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의지해오는 친구를 옹운 길로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잡아주는 친구의 손을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장애 친구들에게 단 한번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눈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친구의 손이, 안내해주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의지가 되던지.

다음날 아침, 운동장에 모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곳으로 봉사를 가는지가 결정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꽃동네에 간다고 했을 때, 아는 언니가 해준 말이 컸가를 맴돌았다. '꽃동네에 간다고? 그렇다면 노인 병동은 절대로 가지마.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노인 병동만은 가게 되지 않기를, 하고 바랬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 노인 병동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도착한 곳은 노인병동이었다.

4층 할머니들의 방. 나는 외부를 맡게 되어 할머니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적은 편이었다. 찬찬히 바라본 그 분들은 어딘가 불편한 모습이셨다. 소리를 지르는 분, 주무시기만 하는 분, 무슨 일이든 일을 하시려는 분... 힘들고 힘들었다.

그나마 나는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일들만 하였지만, 내 친구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다들 지쳐서 쉬고 싶어했다.

그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대학생 언니들이었다. 언니들은 힘든 내색도 없이 온갖 곳을 일을 하며 할머니들께 말을 걸고 있었다. 자신의 친할머니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친근한 한 마디 한 마디에 나도 모르게 언니들을 바라보는 일도 있었다.

2박 3일 동안 본 수많은 힘든 친구들과 그 아픔이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 속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내가 편안해진 그 순간에 그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오래도록 그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께 빌어본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

심수정(청년 1부)

졸업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별 다를 바 없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취업난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캄보디아 아웃리치(단기선교여행)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들을 끌어안고 지내던 터였다.

떠나기 전, 몇 주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조금씩 아웃리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의 고민까지도 해결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캄보디아의 프놈펜 공항에서부터 처음 접했던 찌는 듯한 더위와 '축'이라는 지방에서 겪었던 열악한 화장실, 샤워실에

적응하느라 초반에는 조금 힘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등 모든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이성민·김창숙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팀 모두 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특히 선교사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캄보디아 청년들과의 만남은 참 은혜로웠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캄보디아의 역사와 지난 몇 십년간의 암울했던 과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할 것들을 마땅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떠난 아웃리치였지만, 그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의 믿음이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청년들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아웃리치 기간 내내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내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던 나의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적인 삶을 직접 바라보면서 얻은 깨달음이어서 그런지 참 귀하게 느껴진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아웃리치 팀의 대부분의 지체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교를 꿈꾸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가졌던 평가회를 통해 많은 지체들이 배우자 이상형으로 형제는 김창숙 선교사님 같은 분을, 자매는 이성민 선교사님 같은 분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만큼 그 분들의 순수한 믿음과 투명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를 떠나던 날, 프놈펜 공항으로 배웅해주신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청년들과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를 하면서, 또 몇몇 자매는 눈물을 비치면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열흘 전만 해도 힘들게 느껴졌던 캄보디아 생활에 우리 자신조차 놀랄 만큼 어느새 모두 잘 적응하고 있었나보다.

캄보디아에 함께 갔던 지체들과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되기를 소망한다.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아름다운 계획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열중선교, 차렷봉사

남미경 A집사(자비 11구역)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요란하기도 했다. 폭죽을 터뜨리며 온 세상이 바뀔 것처럼 흥분의 도가니였다.

멈출 줄 모르고 이 세상은 세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첨단산업분야, 게놈, 인간복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십년이 걸릴 일들이 일년 아니 한 달이면 족하다는 이때, 우리가 시기, 질투, 자기 유익에 급급한 나머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의인을 구하시려고 축제의 마당에 우리를 세우신다.

주님의 교회를 십여 년 기초훈련 시키신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를 여름장년학교에 임 목사님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시작하시려고 평신도를 모으셨다.

목사님께서는 「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표현이 믿음이고 섬김이라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열중 선교, 차렷 봉사, 열중 선교, 차렷 봉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길 원하신다. 강석영 목사님과 이승렬 목사님께서 선교와 봉사에 대한 깊이있고도 귀한 강의를 해주시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니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이정원 B집사(사랑 5구역)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함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의 직책을 부여받은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건전하고,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선교지이며 우리 각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든 것이며,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나눌 것이며, 남과 북이 손을 잡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별 장기자랑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고 유익웅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었다.

바울이 바울되게 밀거름 역할을 충실히 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몇 해 전 이성민, 김창숙 부부 집사님을 캄보디아 선교지로 보내시어 선교와 봉사로 현지인들을 변화시키고 청년들의 T셔츠와 수건, 손목시계까지 풀어주며 눈물로 헤어짐을 아쉽게 하신 하나님!

수원에서 딸의 가정에 오셨다가 여름장년학교에 참석하신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다음날 제 손에 살며시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좋은 곳에 써 달라던 그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우리의 인생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보내야 할 가상극이 아니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교와 봉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린다. 아멘.

알 립 니 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10월 7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원중 안수집사).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 9-10절)

'좋은 신앙서적 읽기' 여섯 번째 모임에서 선택하였던 책은 브루스 윌킨슨(Bruce H. Wilkinson)의 『야베스의 기도』였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담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된 네 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이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말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고 복을 주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을 잘 알았던 야베스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얻지 못하는 복을 구하였다.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진정한 복을 달라는 것이다.

지경을 넓혀 달라는 두 번째 부분은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열어 놓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세 번째 부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접촉, 그의 만지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

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다.

네 번째 부분인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성도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탄의 강한 요새를 다루고 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한 것임을 간파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최대의 전략인 속임수에 손을 놓고 당하기 쉽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호에 관한 것이었던 것처럼, 야베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주님의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자.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공해를 구하는 자들이 되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자. 예수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열 손가락으로 말하는 가족

백경숙(테레사) 선교사

주님의교회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 드리며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비해 여기는 울창한 숲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택에 가끔은 긴 소매옷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1년 12개월 동안 가장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7-8월은 러시아인들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초록의 계절입니다. 9월이 오면 차가운 시베리아에 겨울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바다가 팡팡 열어서 자동차가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러시아의 겨울이 싫지 않음은, 함께 즐거워하며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맺어진 소리 없는 이들! 반짝거리는 두 눈과 열 손가락으로 말하는 이들! 찬송가 악보가 필요 없지만 굳이 소리 내어 찬양하고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열 자식인들 귀하지 않으리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마음 어린 양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소중함을 아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지요. 화

려한 예루살렘 거리보다 갈릴리 해변 어부들과 친구되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의 걸음이 그저 좋아보이기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흔을 바라보는 노부모님의 가쁜 숨소리를 마다하고 혼자 서울을 떠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진주 여고 2학년(18세) 겨울에 선교사로 서원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덟 번씩이나 이사를 하고, 강도의 습격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지며, 영양부족과 풍토병으로 절규하던 애처로운 시간들이 지나면서 러시아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음은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과 무릎 때문임을 고백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면 혼자이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은 러시아의 말 없는 자들을 위해 중보의 손을 모으는 선교사들의 헌신임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 농아인 장로교회'가 러시아 연해주 정부 종교기관에 등록된 지 만 2년이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연해주 각 도시 농아인 회관을 빌려 예배드리러는 처소가 여섯 군데입니다. 연해주 주립 농아인 학교는 교사들의 협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립 농아인 유치원의 아이들에게는 친절한 이모가 되어 수시로 방문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시간의 예배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는 순례자의 길을 때론 마다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저를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보고 싶은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은 잠시이고 저는 열 손가락으로 말하는 이들을 위해 거칠어진 열 손가락 깎지 끼워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예배당에 모여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을 배우고 싶어하는 소리 없는 제 가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속히 다다르길 기원합니다.

각 도시의 성도들을 모아 지도자 양육을 하므로 농아인이 농아인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은 선교사인 저보다 훨씬 심령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연해주 농아인 성도들은 새벽 5시부터 자정에 이르기까지 청지기 기도시간에 예배당 구입과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는 저희 가족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족들의 건고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골12:11)'는 말씀대로 러시아 이웃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임영수 목사님, 강석영 목사님 그 외 교역자님들, 선교회 가족들 전 성도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백경숙(테레사) 선교사 드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며

이을형 교수(숭실대, 운유 14구역)



올해로 광복56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가해자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겸허한 자세로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고 있음을 본다. 요사이 일본의 역사 왜곡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해방 후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무엇하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들도 너무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쉽게 일본을 대하는 데서 크나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을 상대하는 위정자들도 현안에 대한 목표, 원칙, 방법, 전망 상의 연구와 분석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국익과 국민감정을 손상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일본국민은 "앞에 내세우는 것과 본심은 다르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역사 왜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고대사에서부터 근대사에 이르는 역사 왜곡과 조작을 자행, 다른나라에 대한 침략을 미화하고 타민족에게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침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이를 은폐하고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敗戰)을 종전(終戰)으로, 침략(侵略)을 진공(進攻)으로, 탄압(彈壓)은 진압(鎮壓)으로, 가정(苛政)은 압력(壓力)으로, 억압(抑壓)은 배제(排除)로, 고종황제(高宗皇帝)는 고종(高宗)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는 민비(閔妃)로,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이씨조선(李氏朝鮮)으로, 태평양전(太平洋戰爭)은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으로, 1,600년 역사를 2,600년 역사로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또 섬나라 특유의 배타적인 면과 자기들이 강해지면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고, 야만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미화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점이 있다.

독일은 패전후 피해국에 대해 수백억불을 원조하고 프랑스의 역사 교재를 채택해 가르치는 등 철저하게 나치스의 잘못을 씻어내는데 노력한 반면, 일본은 그 반대의 입장에 서서 지금도 피해를 준 나라들과 그 민족을 괴롭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본은 문화국민이라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일본은 1875년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해 운양호사건을 시작으로 천인공노할 명성황후의 시해, 1910년 을사늑약(勅約)으로 강제 합병후 10년 동안 전 농지의 50%(10만ha) 이상을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약탈, 그 결과 농민의 75%가 토지를 잃고 소작인(42%)이나 토지관리인으로 전락되었고, 약탈한 토지는 일본인 지주에게 귀속시켰다. 또 농민의 혈세는 총독부 수입의 50%이상이었고, 합병 후 4년간 5-6배(78.8%)나 증가시켰다.

또한 민족성의 철저한 말살과 고대사 등 역사왜곡을 위하여 고서(古書) 22만권 이상의 책을 불사르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우국지사들은 1907년-1908년, 1년 사이에 1만5천명이나 희생되었고, 3.1운동 때는 8,000여 애국지사가 살해되었고 1만 6천명이 부상당했으며 20만 2630명 이상이 투옥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최소한 징용 80만명, 학도병 36만명, 정신대 5만명을 전쟁터로 몰아 희생시켰다. 또 말과 글, 국기와 국가, 신사참배 강요, 창씨개명까지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철권정치로 우리들을 유린한 것이 8.15 이전의 실상이었다.

일본이 아직도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망상을 못버리고 억지로라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은, 극우파뿐만 아니라 현 위정자들에게도 산재해 있으며 이에 영합하여 황국사관에 입각한 식민지주의적 사고가 유지되고 있는데 주목해야만 한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적을 합리화하는 그들의 속성은 경제와 군사대국화와 함께 노골화해 갈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해방 후 일본과 대좌하여 1965년 타결을 본 한일협정이나 1999년 발효된 어업협정만 봐도 우리 권리를 제대로 못찾은 실 패작으로, 재협상하거나 폐기되어야 할 협정 내용으로 일본의 페이스에 끌려간 양상이다. 이것은 연구와 검토 부족이 빚어낸 것이다. 세계의 변화에 예나 지금이나 둔감한 것도 문제려니와, 오늘의 위기 상황을 자각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하지도 못한다. 이에 대한 반성과 지난날 한일간의 잘못된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 인식을 바로하고, 로마의 멸망원인이 외침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 있었다는 데서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Santaya가 말한 것처럼 "역사를 잊어 버리는 자는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경고를 음미할 필요성을 느낀다. "조국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잃는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는 실력으로 극일(克日)하고 우리 역사도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새로 펼쳐가야 할 과제가 있지 않는가. 광복 제56주를 맞으며 느끼는 감회는 비단 나만이 아니리라 생각해 본다.

돌사람과 나눈 이야기

오종세 집사(화평 5구역)



지난 7월 15일, 주일날 꼭두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져 서울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은 화평 5구역 식구들이 용인에 있는 세종옛돌박물관을 가기로 한 날, 이미 버스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3부 예배 후 아래층에 내려와 보니, 평소 같으면 정겨운 인사말과 커피향이 넘쳐났을 로비가 쓸렁할 정도로 한산하다.

세종여행사 사장님으로 이번 박물관행을 주선한 허 집사 내외분만 눈에 띄었다. 출발 시간 1시가 가까워지자 어디선가 구역 식구들이 빗물 흐르는 우산을 접어두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화평 교구 강정호 목사님도 청하여 버스에 오르니 모두 이십여 명. 그런대로 빗속에서 출발하고 보니 이번에는 빗속에서 소식이 오고 있었다. 교회 식당 침수로 모두들 국수를 먹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길가에 버스를 세우고 김밥을 사오니 영락없이 소풍가는 날.

세종옛돌박물관은 영동고속도로 양지 인터체인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니 날씨는 말끔히 개어 있어 우산은 양산이 되어 버렸다. 푸른산 낮은 산자락에 회고 흰 수천 개의 돌사람이 말없이 서 있는 모습에 웬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무덤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사찰을 지키던 돌사람들이 도시화 산업화로 온통 파헤쳐진 국토에서 자기 설 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 골짜기를 피난처로 삼으니,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생사를 모르던 나이 많은 친척들을 양로원에서 만난 느낌이다.

돌사람 앞에 서면 돌사람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하얀 바탕에 작고 검은 반점이 골고루 박힌 화강암, 이 땅의 돌사람은 거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대리석이 화려한 비단옷이라면 화강암은 수수하고 소박한 무명옷이다. 그것도 냇물에 빨고 빨아서 희어지고 부드러워진 무명옷이다.

이곳에 서 있는 화강암 돌사람은 수백 년 풍우에 시달리고 씻겨서 모난 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엄숙하고 딱딱한 모습 다 누그러지고, 돌 속에 감추인 따스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뼈마디가 굳어지며 자기 주장으로 완고해지는 것일까. 왜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관에도 물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맑은 미소짓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바로 어린이일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의 순진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박물관 뜰에 서 있는 돌사람이 차지한 땅은 채 한 평도 안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 넓은 영지를 다스리던 영주였다. 지난날 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구름을 거느리며 학과 소나무를 벗삼아 양지 바른 곳에서 있던 죽음의 증인들이었다.

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돌을 세우는 것일까.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출렁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덧없이 가볍고 공허하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 어떠한 돌로도 태어나고, 살고, 스러지는 인간조건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단단한 돌을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 말고 무엇으로 내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사람 다닌 자취 뚜렷하지 않아 길은 희미하기만 하다.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근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걷는다. 이때 저만치 멀리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 나그네는 그가 반갑다. 동네 어귀에 세워진 돌사람은 또한 이정표였던 것이다.

박물관 아래 동네에서 저녁을 먹고 출발하니 6시. 서울에 이르는 동안 버스 차창 가득히 비 온 뒤의 맑고 산뜻한 서편 하늘이 이어져 갔다. 그러면서 산 속에 두고 온 돌사람이 언뜻언뜻 차창에 떠오르고 있었다.

돌사람 앞에서 지나온 길 뒤돌아보고 갈 길을 헤아려 보니, 나 또한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닌가.

성 경 퍼 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1. 소금기둥 3. 일곱족속 5. 자유 9. 모리아산

11. 에스겔 12. 바벨탑 13. 돌베개

■ 세로 2. 기근 4. 속건절 6. 유월절 7. 마리아 8. 에벤에셀

10. 아벨 14. 베다니

■ 정답 보내주신 분: 김희경(사랑 11구역), 이현재(희락 13구역),

조영욱 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가로열쇠

2. 예수님이 최초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는 어느 지방에 속하는가(요2)
3.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제 3월에 도착하여 장막을 친 광야(출 19)
5. 나사로의 고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곧잘 이곳에 유하신 곳(요11)
7.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곳
8.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매오를 고쳐주신 지방
10.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은 나무(창 22:33)
12. 아굽의 새 이름
13. 예수님께서 군대귀신을 쫓은 곳은(막5)

■ 세로열쇠

1. (소녀야) 일어나, 걸어가라(막 5:41)
4.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며, 죽었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눅 8)
6. 유대인 관리이며,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요 3)
8.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창 22)
9.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했던 곳은(창 4:6)
11. 높임이라는 뜻의 예배시 음악용어로 시편에서 찬양하는사이에 붙이던 말(시편 3 등)
14.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눅 17)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0월 7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

교 회 소 식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교육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산하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비: 6만원(교회가 3만원 지원)

기간: 2001년 9월 13일(목)~11월 15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5시 (총 40시간)

장소: 정동감리교회 사회교육관 2층 은명홀(시청역 덕수궁 뒤),

신청: 본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9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경공부: 2학기에 개강될 성경공부 및 강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요강좌(임영수목사): 치유와 성장 9월 4일(화) 오후 7: 30, 대예배실

화요주간반(김병모목사): 복음의 삶 9월 4일(화) 오전 10: 30, 지하 성가대실

구역장 성경공부(교구별): 9월 6일(목) 새벽기도후 각 교구별로 있습니다. 구역모임은 9월 7일(금) 저녁부터 있습니다.

목요기도회(이상훈목사): 9월 6일(목) 오후 8: 00, 1층 소예배실

3. 임직자 선거(장로 6인, 안수집사 20인, 권사 20인)를 위한 공동의회가 9월 2일 1부 예배 후 열립니다.

1차 선거는 9월 9일(주일) 1. 2. 3부 예배 후 실시됩니다.

4. 3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시간: 주일 오전 10시, 지하 1층 성가대실, 연락처: 박인용 집사 011-741-3790)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주부인데 얼마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여건은 마음에 들고 앞으로 비전도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미국인 사장의 종교가 물몬교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고 있는 집사님께 상담을 해보았지만 대부분 별문제로 의식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러나 회사규모도 세계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회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상담을 드립니다.

◆ 답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고민하는 성도님의 자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원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쯤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학과 신앙 성향에 따라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질문 주셨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이것만이 정답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이슬람이 국교인 중동지방의 어느 나라에 예수를 믿게 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가 코란(이슬람종교의 경전)에 근거한 그 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삶과 완전히 상반되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임하지 않고 공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슬람 사회에 떨어진 한 개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슬람 사회 내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회생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 옛 소련의 공산당 시절, 중요한 장군 중에 독실한 침례교인이 있었습니다. 반성경적인 붉은 사상의 전위대인 소련 군대조직 내에서 그는 힘들지만, 기도로 싸우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애쓰며 살았습니다. 비밀리에 성경공부 그룹을 만들고 가끔 지하교회로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소련군 내에 상당한 크리스천 그룹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 안에서 기독교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 조직을 버리고 산으로만 숨어버리면 누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시대에 보델 슈빙그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독일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유지키 위해, 독일 국민 중의 장애인,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안락사 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슈빙그 목사님은 이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여하면서 결국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도피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 성경에서도 다니엘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바벨론과 바사의 고레스 왕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바벨론이나 바사는 엄밀히 말해 유대나라의 적국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에서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결국은 포로 귀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방왕국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종교적·내적 갈등과 고난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상황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성도님이 종교·신앙적 문제로 인해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제 입장은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회구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조직의 분위기,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 등등 ... 이런 것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약하고 거대한 악의 구조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살람.

시

절 망 은 없 다

이희숙 A권사(온유 7구역)



표적을 주시겠지 아침잠 희생제물 날마다 바치면
약삭빠르게 흐르는 바람결 따라 유려하게 흘러가는 물길 따라
가볍게 때로는 비장하게 세상 닦지 말자고 도망치자고
전조등 불빛 새벽 안개 좌악! 가르며 고속으로 달렸어
한눈 팔지 말아야 했어 앞만 보고 달려야 했어
하늘 향해 방음벽 넘어가는 담쟁이 길 곧장 앞만 보고 달려야 했어
저녁 강 튀어 오르던 은빛 황홀 만나지려나
강을 내려다봤어 헉! 숨이 막혔어 검푸르게 뒤틀린 몸뚱아리
저물녘 물안개 장미꽃 빛으로 흐르던 강 죽어있었어
청동솥물 물길 꿈쩍하게 굳어있었어
강변도로 따라 세상 먼저 해맞이 가는 길
몇 번이나 보았던가 얼마나 더 만나야 하는가
저 납덩이 바다 같은 절망을!